



MARCH 2023

뉴저지 초대교회

자녀를 위한 순예배

부모와 자녀세대를 연결하는 신앙적 소통 만들기

교회를 향한 거룩한 부르심

이사야 6:1-8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고린도전서 1:2)

FAMILY ACTIVITY "CLEANSING SINFUL COINS"

Prepare: 더럽고 오래된 동전, 소금, 식초, 작은 Jar, 페이퍼 타월

1. 소금 1 티스푼과 식초 4분의 1컵을 섞어서 용액을 만듭니다. 소금이 다 녹을때까지 저어주세요 (식초가 따뜻하면 도움이 됩니다). 만들면서, 물은 교회와도 같고, 소금과 식초는 성령님을 상징한다고 말해주세요
2. 용액안에 더러운 동전들을 넣어주세요. 동전들은 죄가 많은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말해주세요. 5분동안 기다려주세요.
3. 시간이 다 되면, 동전을 꺼내서 페이퍼 타월로 잘 닦아주세요. 동전이 깨끗해졌을거예요.

물에 소금과 식초가 없었더라면 동전을 깨끗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들 교회또한, 교회안에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깨끗하고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살아 움직이시고 역사하신다면 그 어느 누구라도 정결하고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과 영적지도자들이 실패한 시대에 살고 있고 이러한 소식들에 익숙해져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이끌어갈 능력을 잃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과 실망감을 안은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시며, 여전히 교회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그날이 이르기전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실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이사야 6:1-8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여기에서 입술이 부정한 죄인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술이 부정한 이사야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시니까 이사야가 깜짝 놀라 어쩔줄을 몰라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뜨거운 숯을 그의 입술에 대시고 그 입술을 정결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악이 없어졌고, 그의 죄가 용서 받았다고 하십니다 (6-7절). 그러자 이사야의 대답이 바뀝니다. 내가 여기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부끄러운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를 거룩하게 하셨듯이, 우리들 또한 정결케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죄를 씻기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죄를 씻기시는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으니 나는 계속 죄를 짓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반드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씻음 받아야 합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주의 능력 가운데 거룩해진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거룩할 수 있습니다.



TALK

1.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들었을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2.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죄책감과 죄의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해본적이 있나요?
3.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주시고 거룩함으로 입혀주시기를 구해보아요.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 우리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해보아요.

CONCLUSION

거룩함이란 단어는 왠지 나에게서 멀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에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정말 좋은 몇 사람들에게나 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거룩함의 부르심을 주십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서 거룩해지는것은 그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마저도, 거룩하신 하나님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때, 두렵고, 부담스러운 마음마저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를 거룩하게 했던것은 이사야의 능력이 아니었음을 기억하세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로지 하나님께로 나아가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를 쌓아두고, 아닌척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씻기심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십니다.



ENDING PRAYER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이 세상을, 또한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포기하심 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주의 빛으로 나아갈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할 분은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 한분이십니다.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선함도 아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사 주의 거룩한 삶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게 능력으로 옷 입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